



무심했던 삶의 안식처 자연이 건네는 위안들

산지천갤러리 공모 기획전
문예슬 기획 맡아 3인 참여
김민주·이정태·전선영 작가
평면·입체 신작 위주 전시

코로나19가 이끄는 ‘가보지 않는 길’에 던져진 화두 중 하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다. 조유의 바이러스를 낳은 원인을 찾아보면 거기에 생태계의 균열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도 위탁으로 운영하는 산지천갤러리가 이

시국에 선보이는 기획전은 그런 점에서 눈길이 간다. 전시기획 공모에 뽑힌 ‘생명 속의 안식처(The Resting Place for all my life)’전을 말한다.

제주의 오랜 역사와 문화의 흔적이 배인 원도심 산지천에 들어선 공간에서 열리는 이 전시는 제목 그대로 생명과 안식처의 의미를 상상력을 입혀 풀어낸다. 문예슬씨가 큐레이터로 참여해 김민주, 이정태, 전선영 작가가 현장 답사, 워크숍을 통해 빚어낸 작품 50점 가량을 펼쳐놓는다.

김민주 작가는 회화를 통해 제주 자연 등을 탐색한 결과를 나눈다. 이



김민주의 ‘사유의 숲’.

정태 작가는 조각과 현장 설치로 전시 주제를 구현한다. 전선영 작가는 지속되는 삶과 사라짐 이후에 남겨진 공간적 성향을 담아낼 예정이다. 대부분 신작들로 채워진다.

전시는 이달 17일부터 7월 10일까

지 약 3개월동안 산지천갤러리 2·3층에서 계속된다. 6월초쯤에는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4시 간소하게 치러진다. 문의 064)725-1208.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 여성의 미래 걸 수 있는 총선 후보는

제주여민회 9명 후보에 질의
성평등 5개 의제 31개 과제
7명은 29개 과제 “적극 수용”
통합당 2명 무응답 두고 비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3개 선거구 후보 다수가 성평등 정책 과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일부 사안에 입장차를 드러냈다. 하지만 일부 후보는 성평등 정책과제 수용 여부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제주여민회(공동대표 이경선, 이양신)는 2020총선 제주 성평등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최근 제주 총선 후보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문는 질의서를 보냈다. 대상은 발송 시점인 3월 20일 직전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1%를 초과하는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후보자와 무소속 송재호 장성철 고병수 박희수, 제주 시을 오영훈 부상일 강은주, 서귀포 시 위성곤 강경필 후보가 그들이다. 응답 수합은 3월 20~31일 이루어졌고 해당 정책과제별로 수용·불수용 여부를 표시하고 기타 의견을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총 9명의 질의대상 중 7명이 답변서를 보냈다. 8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여성들이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 제도 체계 마련(평등한 시민권) ▷평등한 노동(공정한 노동권)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법 개정(젠더폭력 근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모두가 돌봄의 주체가 되는 돌봄 민주주의의 실현(돌봄민주주의)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여성 건강권) 5개 의제의 31개 세부과제중에서 29개 과제에 대해 모두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여성의 건강권 의제 중 ‘형법 내 낙태죄 전제 삭제’는 무소속 박희수 후보가 불수용 입장을 나타냈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위성곤 후보는 국민적 합의수준 미흡, 신중검토를 이유로 무응답했다. ‘임신중지와 피임 관련 건강보험 전면적용’에 대해선 위성곤 후보가 무응답하며 신중검토 의견을 보였다.

반면 제주시갑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서귀포시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여러차례 선거사무실을 통해 답변을 촉구했음에도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제주여민회는 이를 두고 “성평등정책에 대한 책임회피와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며 “적어도 성평등 정책에 관한 한 이들 미래통합당 2명의 후보는 성평등한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미래 청사진에 어떠한 관심도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적극적인 비판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제주여민회는 “이번 선거는 미투운동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인 만큼 여성들이 국회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크다”며 “제주 성평등 정책과제 적극 수용의견을 피력한 7명의 후보들 중에서 제주 국회의원이 선출된다면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 전반에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마침내 부르는 제주예술단 ‘봄의 노래’

제주아트센터 무관중 공연
시청 동영상 채널로 생중계

제주도립 제주예술단(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이 마침내 온라인 공연으로 봄을 노래한다. 이달 21일 오후 7시부터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되는 ‘그래도,

봄(Spring) 봄(Look)’ 실황을 제주시청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평범한 나날이 그리운 시민들을 위해 제주시와 제주예술단이 공동으로 준비한 무대다. 우리 귀에 익숙하고 봄의 계절에 어울리는

곡들로 프로그램을 짜서 제주예술단원들의 독주와 독창 등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제주예술단원들은 온라인 이긴 하나 올겨울에 처음 이 공연을 통해 제주시민들과 만난다.

공연 프로그램은 현악 앙상블로 연주하는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봄’, 성악으로 전하는 이은상 작사·김동진 작곡의 우리 가곡 ‘가고파’, 바이올린 독주로 준비된 김남조 시·김순애 작곡의 ‘그대 있음에’, 소프라노·테너 듀엣으로 빚어낼 현재명

작사·작곡의 ‘희망의 나라로’, 피아노 트리오로 선사하는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등으로 구성됐다. 그 리움, 사랑, 희망을 주제로 총 15곡을 들을 수 있다. 제주교향악단 정인혁 지휘자가 해설을 맡는다.

제주시는 “딱딱한 일상 속에서 음악이 시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다”며 “비록 공연장이 아닌 온라인 환경이지만 봄의 정서를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詩(세)로 읽는 4·3 (54)

터진목

장영춘

세상 뜬 어느 사내
회오리바람 몰고 온
달을 듯 달지 못한 젖은 손을 내
밀며
터진목 붉은 발자국 모래알을 날
린다

만선의 꿈을 한번
이룬 적 있었는가

겨우내 모래톱에 새겨 넣은 불립
문자
오늘은 누구의 죄를 단죄하려 드
는가

터진목은 성산 앞바다 광치기 해변을 말한다. 성산리는 본섬에 딸린 작은 섬이었다. 고립된 것은 아니고 썰물 때 드러나는 모래톱이 본섬을 이어줬다. 이 ‘터진 길목(터진목)’을 따라 사람들이 왕래했다. 성산리는 4·3사건 발발 초기에 무장대가 한차례 경찰지서를 습격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서북청년단으로 구성된 특별중대가 주둔하면서 죽음과 통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북청년단은 광복이후 월남한 사람들이 만든 평남·함북·함남·황해청년회 등 이북 출신 청년단체가 통합해 1946년 서울에서 결성된 반공주의 집단이다. 서청제주지부(단장 김재능)는 1947년 조직됐다. 이들에 의해 자행된 무자비한 테러행위는 제주도민의 감정을 자극해 4·3 발발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서청특별중대는 성산초등학교를 접수해 1년간 주둔했다. 이들은 군복만 입었을 뿐 명찰과 계급장도 없었다. 군번이 없었고 군제에도 이름이 등재되지 않은 ‘군인 아닌 군인’이었다. 학교 건물에서 숙식

하던 이들은 학교 옆 감자 창고에 주민들을 붙잡아 온 후 취조를 했다. 서청 특별중대의 존재는 성산면·구좌면 주민들에겐 악몽이었다. 이들은 주민들을 혹독하게 고문하다 대부분 총살했는데 그 장소가 성산리의 ‘터진목’과 ‘우뭇개동산’이었다. 온평리, 난산리, 수산리, 고성리 등 4·3 당시 희생된 성산면 관내 주민 대부분이 이곳 터진목에서 희생됐다. 이외에도 구좌면 세화, 하도, 종달리 등에서도 붙잡혀온 주민들이 이곳에서 희생된 경우가 많았다. 현재 터진목 초입에는 성산읍4·3희생자 유족회가 2010년 11월 5일에 세운 위령비가 자리하고 있다. 이 위령비에는 추모글과 함께 성산면4·3희생자 467위의 이름이 마을별로 새겨져 있다. 한편 이곳에는 2008년 프랑스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르 클레지오의 ‘제주기행문’ 일부가 새겨진 빛돌이 자리해 ‘어떻게 이 아름다운 곳이 학살터로 변했는지?’ 그 연유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문화가 쏘지

박물관 사회교육 잠정 중단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중 개강 예정이었던 2020년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중단되는 프로그램은 ‘창의의 나라 놀자’, ‘한문고전교실’, ‘박물관 시민 아카데미’, ‘박물관 밖 인문학 여행’이다. 박물관은 “개강일정이 확정되면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지하겠다”고 했다.

박물관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는 친환경 정책의 하나인 전기차 확대보급과 전국 충전 인프라 확대구축을 위한 전국 박물관·미술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주)이브이세상(대표 정수향), (주)차지인(대표 변성웅)과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전기차 완속 충전기(7kWh)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접수는 4월 15일까지 실시된다. 문의 02)795-0959.

SINCE 1989
한라일보 31주년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독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동체 공적 담론의 장을 제공하며
건전한 여론 형성은 물론 제주사회가 가야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제주의 대표신문 한라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GS칼텍스

삼남석유(주)

대표이사 장규성·장규방